



2022. 12. 19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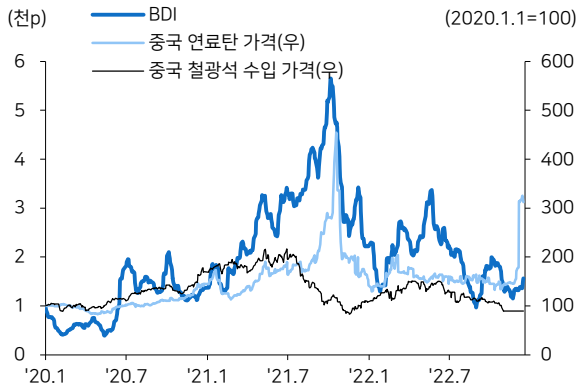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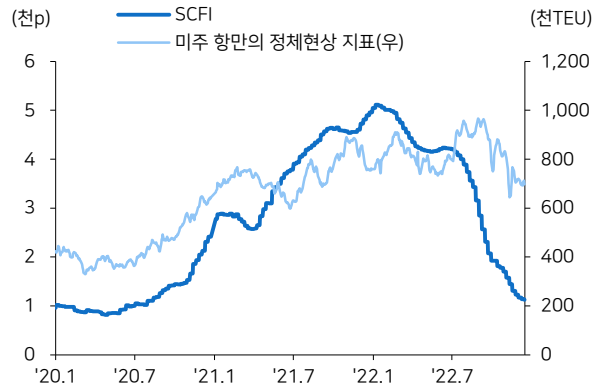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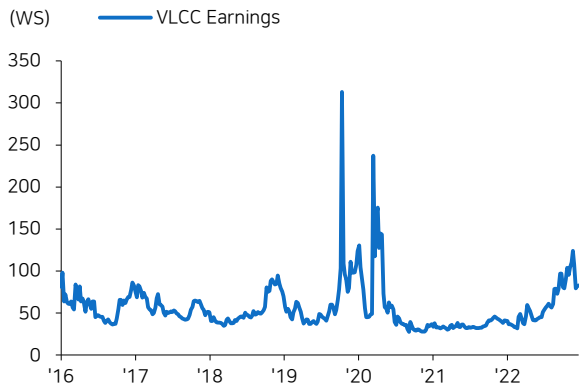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60.0p(+3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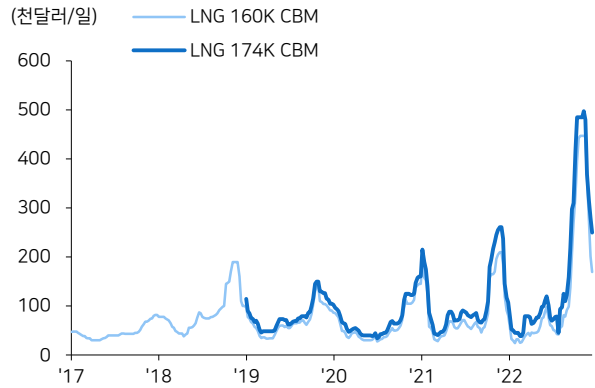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23.3p(-14.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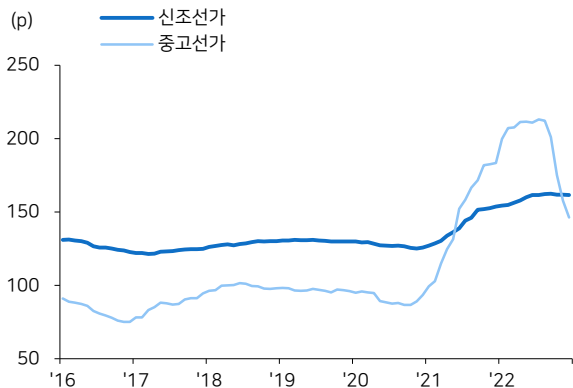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7p(+0.5p WoW)



LNG Spot 운임 169.3p(-32.0p WoW)
250.0p(-3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0p WoW)
146.1p(-11.8p WoW)



항공시장 지표 248.2p(-2.6p DoD)
96.4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inally happening': IMO makes progress in teeing up historic carbon decisions in July

2주간 열린 IMO MEPC회의와 작업반 회의에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과 연료 표준 설정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됨. 2050년 탈탄소 목표에 지지하는 국가 수가 많아졌다고 알려짐.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함. 국제해운회의소(ICCS)는 탈탄소 조치들이 2024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China establishes massive iron ore buyer, but market expert plays down shipping impact

중국 국영 광업자원그룹(CMRG)이 2023년 전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 업체가 될 것이지만 벌크선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도됨. CMRG는 중국의 상위 약 20개 업체를 대표해 철광석 수입을 할 것으로 보도됨. 중국 철광석 수입가격은 저렴해지겠지만, 해상운임은 제철소의 수익성 영향이 더 크다고 언급됨. 한편, 지난주 Capesize 5TC spot 운임은 전주대비 31.2% 상승했는데, 발틱거래스는 서부 아프리카 물동량 증가 및 북대서양 선박 부족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Tradewinds)

Car carrier prospects bright despite orderbook hitting 10-year high, Clarksons says

Clarksons는 높은 자동차운반선 수주잔고에도 시장은 호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2022년 해상물동량은 car-mile 기준 14% 증가해 팬데믹 이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언급됨. 장거리 항로인 중국 수출량 증가 영향이 크다고 설명함. Clarksons의 2023년 base 시나리오상 물동량이 5% 증가하며 최근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수주잔고는 10년래 최고 수준인 641,000CEU로, 현재 선대의 16% 수준임. 2024년 선박량은 6.1% 증가할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Aramco and TotalEnergies sanction \$11bn Saudi petrochemicals project

사우디 Aramco와 프랑스 TotalEnergies가 110억달러규모 사우디아라비아 Amiral 석유화학단지 FID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됨. Amiral 단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해안 Satorp 정제시설과 통합될 것으로 알려짐. 해당 단지는 에틸렌 1.65MTPA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짐. 2023년 1분기 착공해 2027년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Aker BP submits \$20 billion of oil and gas development plans to Norway government

Aker BP와 Equinor 등 파트너사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200억달러 규모 석유 및 가스 개발 투자안을 제출했다고 보도됨. 총 11가지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들의 생산 시작일은 2027년으로 알려짐. 평균 손익분기 유가는 배럴당 35~40달러로 알려짐. (Upstream)

대한항공, 코로나로 중단된 일반직 채용 3년만에 재개

대한항공이 COVID-19로 중단됐던 일반직 사원 공개채용을 3년만에 재개했다고 보도됨. 채용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짐. 팬데믹 이후 대한항공이 일반직 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2019년 마지막으로 채용한 신입사원들은 COVID-19 여파로 2021년에야 정식 입사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